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가노 쇼트트랙 금메달의 김동성 선수

-김동성-



이번 주일도 영락없이 새벽부터 잠을 설쳐야 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기도소리 때문이었다.

"주님, 우리 동성이 이번 올림픽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하게 하시고..." 방문 넘어로 나지만하게 들리는 어머니의 기도소리만큼 세상에서 듣기 좋은 것이 또 있을까? 집에 온 것을 실감

하게 해주는 내 영혼의 자명종과도 같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부쩍 나를 위한 기도를 많이 하신다. 아버지께는 내가 어머니를 잘 모시겠다고 약속했는데...

97년, 주니어 선수권 세계대회를 마치고 국내에서 열린 종합 선수권 대회에 참가하고 있을 무렵이었다. 아버지는 그 당시 심장이 좋지 않으셨는데도 기어이 빙상 경기장까지 막내 아들을 보러 오셨다. 아버지 같은 환자들은 그런 날에는 외출을 하는 게 아니라고 했다. 아버지가 보고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벌써 나의 다리에는 팽팽하게 새로운 힘이 솟아나고 있었다. 신호탄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있는 힘을 다해 세차게 얼음 위를 달렸다.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들은 것은 내가 경기를 다 마치고 난 뒤였다. 아버지는 빙상 경기장에서 그렇게 나를 지켜보시며 임종을 맞으셨던 것이다.

그 후 나가노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천미터 결승의 신호탄이 떨어졌다. 내 옆에는 세계 랭킹 1위인 중국의 리자준 선수가 바짝 붙어서 달리고 있었다. 좁은 코너를 엄청난 스피드로 돌아갈 때면 부상당한 무릎과 발목이 제대로 힘을 받쳐주지 못해서 경기장 바깥으로 튕겨져 나갈 것만 같았다. 하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었다. 그 순간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버지.. 나를 보러 스케이트장까지 오시고,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던 아버지가 지금 이순간에도 지켜보실 것만 같았다. 결승점이 점점 가까워 왔다. 중국의 리자준은 나에게 한치의 틈도 허락하지 않은 채 공기를 가르며 달려나갔다. '이러다간 동시에 들어가겠는 걸.' 이런 생각이 퍼뜩 들자마자 내 앞 발에는 갑자기 힘이 들어갔다. 그리고 결승점을 향해 스케이트의 날이 조금 더 깊고 멀리 힘껏 내밀었다. 세간에 유명해졌던 '칼날 내밀기'였다. 1초도 안되는 사이에 나한테 어떻게 그런 지혜가 어떻게 떠올랐을까? '1위 김동성, 1분 32초 375' '2위 리자준, 1분 32초 428' 불과 0.053초의 미세한 차이가 나가노 동계 올림픽 금메달을 나에게 안겨준 것이다. '아버지 저, 금메달 땀어요' 태극기를 가슴에 펼친 채 링크를 한 바퀴 돌 때 내 얼굴은 어느새 눈물 범벅이 되었다. 금메달을 가슴에 걸고 귀국하자마자 달려간 곳은 아버지의 묘였다. 아버지의 비석에 금메달을 걸어 드리고나서 약속 한가지를 했다. "아버지, 이젠 걱정마세요. 어머니는 제가 잘 돌보아 드릴게요."



◀추억생각하기▶ 그레고리 픽과 로마의 휴일
 그저께 신문에서 그레고리 픽의 별세 소식을 읽었습니다. 기자와 공주의 신분을 서로 감춘 채 분수대 앞에서 오드리 헵번과 나누던 사랑의 모습, 지금 생각해도 아직도 가슴이 설레는데 어느새 87세의 노인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미와 젊음도 아무렇지 않게 사라지도록 하는게 하나님의 법칙임을 알 것 같습니다. 몇 년전, 오드리 헵번도 암으로 그렇게 떠났 다지요?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삼과 교회의 주인	'2003년 교회생활' '건강하기정건강한교회' 갈보리 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의명성 -명예
제 5권 24 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3년 6월 15일
☎520-9464 71 Khyber Pass Rd.(The Church of the Holy Sepulchre)		calvary.ca.to

누군 좋아서 트럭 타고 다니나



이 곳에 온 지도 벌써 9개월째가 됩니다. 세월 참 빠르지요. 전방 길이 험하고 가지고 다닐 위문품이 많아서 차가 필요했습니다. 봉고차나 지프차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여유가 되지 않아서 싸게 나온 경트럭을 구입해서 타고 다녔습니다. 불편하긴 해도 용도가 다양하고 LPG라 유지비가 거의 안 들어갑니다.

800cc 엔진이라 언덕에서, 특히 짐을 실었을 때는 거의 기는 수준입니다. 최고속도도 겨우 100km가 나올까 말까입니다. 시트가 전혀 조절되지 않아서 허리도 못 펴고 매우 불편합니다. '오래 탈 차는 못 되겠구나. 형편이 좀 나아지면 차를 바꿔야겠다...' 사실 저의 본래 생각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모습이 여론에 의해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보는 사람들마다 한 마디씩 합니다.

"목사님, 아이디어가 기발합니다."
 "이런 검소한신 목사님이 대접받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훌륭한신 목사님은 국방일보에 나와 합니다."
 "일전에 일간지에 봉어빵 굽는 목사가 났던데 목사님은 대통령 표창감입니다."
 "트럭을 타고 다니시는 목사님의 모습이 감동적입니다" 등등...
 순수한 열정과 청빈을 실천하는 고상한 목사, 남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길을 가는 기인(?)으로 봐주는 것입니다.
 아니, 남의 속도 모르고... 누군 좋아서 트럭 타고 다니는 줄 아는지...
 이래서 목사가 위선자가 될 위험이 많은가 봅니다. 저는 지극히 평범하고 때로는 속물근성도 고스란히 남아 있는, 별로 훌륭하지 않은 목사임을 밝혀둡니다. 그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이 길을 가고 있을 뿐입니다.
 -전방의 어느 군목-

엄마가 딸에게
 수도물을 너무 세게
 틀지 마라
 계량기가 빨리 돌아간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일하여 거칠어진 손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오히려 거칠어진 마음을
 부끄러워해라

주 일 예 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광송 Gloria	"Calvary"	다 같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도니라	인도자
*찬송 Hymn	12장	다 같이
*성서교독 Response Reading	64 (감사절)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교회소식 Welcome & Announcements		
어린이 시간 Sunday School		주일학교
찬송 Hymn	460장	다 같이
기도 Prayer		김순자 권사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출애굽기 34:18-24	인도자
성가대 찬양 Choir		나무십자가성가대
설교 Sermon	감사합니다	김성국 목사
찬송 Hymn	310장	다 같이
헌금 기도 Offering Pray		인도자
응답송 Response Song	'여기에 모인 우리'	다 같이
축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예배를 마친후 Hall에서 Tea Time을 갖습니다)

◆11월의 예배위원◆

일자	주일기도	헌금위원	가족찬송	Tea Time
2	지찬영	고성일		김현수, 김홍구
9	최재학	권용일	권정호, 강현정	박병민, 박 실
16	김교섭	김경숙	정종일, 이선애	박일영, 박재양
23	김순자	김경일		박태원, 서동완
30	김종건	김동숙		양경배, 원성호

'2003년 교회표어
"건강한 가정, 건강한교회"(마 18:4)
부모의 기도받는 자녀
남의 형편 헤아리는 신앙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교회를 다녀 보신후 결정
하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 낮 12시 | 수요일예배: 저녁 7:30 | 아동, 학생부: 주일 낮 12시 | 청년부: 토 저녁 7시

- 교우소식
<한국방문> *박필순 성도(17일) *강순남 집사(22일) *한정옥 집사(26일)
<장례후 귀국> 이광희 장로(18일), 정관영 집사(20일)
-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올 한 해동안 가족, 사업, 건강 그리고 믿음농사를 잘 짓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교회는 추수감사헌금등 절기헌금이 별도로 없고 매달 한번씩 드리는 "이삭줍기"헌금을 추수감사헌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주일이 이삭줍기 주일입니다). 지난번에 보니 아이들은 무지개 떡, 어른들께서는 팔 시루떡을 좋아하시더군요 (저는 썰지 않은 가래떡이...). 예배 후 추수감사주일을 맞은 감사를 떡을 나누며 갖겠습니다.
- 대학입학을 위한 Busary 시험중입니다. 노력하며 얻은 지식이 떨리는 마음에서도 당당하게 발휘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지연(김종원, 김영경 집사), 박규형(박기창, 한정옥 집사), 이승윤, 이의현, 정상현(정관영, 황경임 집사).
- 남선교회 운동경기: 오늘 예배 후 은혜와진리교회와 족구시합
<장소> 은혜와진리교회(32 Edgewater Dr.Pakuranga). 오후 3시(선수들은 2:30분에 모임)
- 학생부, 청년부 정기 Sports Day: Tea Time후 YMCA(City).
- 찬양예술제, 29일(토) 저녁 7시, Victory Christian Church, 98Beaumont St.City
- 다음주일예배 특별찬양(예고): "갈릴리국악선교단"
*찬양예술제에 참가한 선교단이 우리교회를 방문해 국악찬양으로 은혜를 전하겠습니다
- 연변과학기술대학교, 평양과학기술대학교 설립자 김진경 총장 교민집회(예고)
*중국내 우리 조선족 젊은이들을 위해, 통일을 바라 본 북한동포를 위해 연변과 평양에 믿음하나 의지해서 과학기술대학을 세운 재미동포 김진경 총장의 믿음의 이야기... <일시> 12월5일(금) 저녁7시, <장소>본당
- 주님의교회 창립8주년기념 성가대발표회(오늘 저녁 7시)에 초대의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착한 시인들▶ 호 수
-정 지 용-

얼굴 하나 아
손바닥 둘로
꼭 가리지만

보고 싶은 마음
호수 만 하니
눈 감을 밖에

부친의 장례를 지내고 오신 교우의 심방.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들이시지만 아버지 앞에서는 물가에 선 아들. 타국에 사는 이유로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었지만 그래도 '언젠가'라는 막연한 날이 있었습니다. 이젠 보고 싶어도 그건 나의 영역이 아니기에 마음에 칼금을 긋는 슬픔의 눈물만이 그 분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보고싶을 땐 눈 감아야만 보이는 그리움의 크기, 호수보다 더 크셨던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